월요광장

처연한 아름다움, '지슬'의 매혹

유지나
동국대 교수·영화평론가

여느 때보다 봄바람이 차갑게 느껴진다. 사년 전이던가? 어느 봄날, 제주 올레 축제에 갔다가 섬 바람이 온몸 깊이 스며 덜덜 떨었던 기억이 난다. 제주는 남쪽이라 서울보다 따스할 것이라고 생각해 준비 없이 떠났던 무지함 때문이었다. 걸어야 하는데 엄두조차 못 내는 내가 한심하고 가련해 보였을 것이다.

제주 사람이 입고 있던 외투를 벗어 입혀주어 따뜻하게 걸었던 기억이 난다. "그러면 당신은 추워서 어떻게 해요, 제 잘못이니 참을게요." 미안해 하자, 그는 "우리는 맨날 제주 바람맞아 괜찮아요 하하하~" 하며 뭍에서 온 무지한 사람을 덥혀주었다.

'지슬 : 끝나지 않은 세월 2'(오멸)을 보며 슬펐다, 웃었다, 신묘한 감정의 파동 속에 휘말리며 제주 바람의 날센 차가움과 따뜻한 인심이 떠오른다. 아픔과 고통을 한 장 한 장 넘겨가며 그려낸 흑백 풍광의 매혹이 가슴 깊이 스며든다. 이런 매혹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다. 가난하게 만든 독립영화는 자본 크기로 승부를 겨누는 영화시장에선 변경에 놓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이 10만 관객을 넘어 개봉관 수를 늘리고 있다는 기적 같은 즐거운 소식이 봄바람 속에 날아온다. 분단국가의 서러움과 아픔을 세계 뉴스로 마주하는 올 봄, 제주 감자 '지슬'이 관객의 호응으로 활짝 피어난 것은 예술과 함께하는 삶의 의미를 가르쳐 준다.

1948년 제주에서 일어난 3만 명의 죽음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는 점이 또 다른 나의 무지함이다. 어쩌다 조금씩 억울한 역사적 기억을 흘려 들은 것이 전부다. 제주에 가면 많은 이들의 제삿날이 같아서 난리 굿이라는 이야기도 들었다. 그런 풍문은 아름다운 섬, 그 풍광을 즐기며 걷기 좋은 제주라는 인식 뒤에 별 흔적 없이 희미할 뿐이다.

그런 와중에 '지슬'을 깊이 응시해본다. 구름을 타고 넘실대는 흑백풍광은 태초의 여신 설문대 할망의 품속에서 땅으로 내려온다. 먼지일까, 안개일까, 뿌연 공기 속에서 땅의 형편이 하나씩 벗겨진다. 폐허 같은 집, 문이 열리면 화면 속 화면이 열린다. 한 남자와 널부러진 제기들이 65년 봉인된 주술을 깨고 그때 그 시절 삶의 형편 속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좁은 구덩이 속에 몸을 부대끼며 한 사람씩 숨어들면서 소개령이 소개된다. '해안선 5㎞ 밖 모든 사람을 폭도로 여긴다'는 내용이다. 소개령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은 이데올로기를 몰라도 극도의 위협을 느끼기에 깊은 동굴로 숨어든다. 구덩이 속에서도, 동굴 속에서도 이들의 근심은 궁시렁대는 대화 속에서 살아난다.

어리숙한 고집쟁이 용필아저씨, 동굴 안내를 맡았다가 길을 못 찾아 구박을 받는 경준, 총알보다 빠르다며 자신의 '말다리'를 시시때때로 자랑하다 장렬하게 달리며 헌신하는 상표, 홀홀단신이기에 돼지가 전부라며 돼지 밥 주러 동굴과 집을 오가려는 순범, 노모를 동굴로 모셔 오려 안간힘을 쓰다 어머니의 참혹한 종말 속에 어머니 가슴 속에 품은 감자를 동굴로 날라 오며 할 말을 잊는 순동, 사모하는 순덕을 가슴에 품고 마을로 내려갔다 불탄 마을을 목격하는 민철…. 이들의 면모가 서글퍼도 오히려 정겹게 유머코드를 타고 풀려나가는 저편에는 토벌대 군인들이 있다.

도식적 드라마 관습에 따르면 이들은 무고한 양민과 잔인한 군대, 혹은 선과 악의 대립이지만, 이 작품은 그런 도식을 넘어선다. 양민 처형 명령을 차마 따르지 못해 벌을 받는 군인, 양민을 돕다 부상한 군인, 빨갱이를 죽여야만 하는 강박에 사로잡힌 군인에게서도 가족사에 맺힌 한의 아픔이 배어나온다.

그런 모습을 보노라면 채플린의 말처럼,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란 깨우침을 일깨워준다. 역사의 질곡 속에 허우적대는 삶의 아이러니를 제사의식으로 수행하는 오멸감독의 태도는 미학적 고귀함으로 나부낀다. 겨울바람이 거센 벌판, 바람에 날아갈 듯 한 여자가 가련하게 서 있고 그녀에게 총을 겨눈 채 마주한 군인은 방아쇠를 당기지 못한다. 이런 처연한 풍광은 앙상한 나뭇가지들로 청아한 하늘을 가르는 장엄한 이미지가 되어 마음에 스며든다.

'지슬'을 아직 맛보지 못한 분들에게 상업영화 1000만 이상의 매혹을 가진 이 작품의 처연한 아름다움에 빠져 보시라고 권한다.

팁 : 영화 제목 뒤에 붙은 '끝나지 않은 세월2'는 제주 4·3을 영화에 담다가 끝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고 김경률 감독을 기리는 뜻이 숨어있다.

교통칼럼

보행자 교통사고는 재수 없으면 발생하는가?

박승주
광주발전연구원 원장

갑자기 뛰어든 보행자로 인해 사고날 뻔한 위험천만한 상황을 많은 운전자는 한번쯤은 겪었을 것이다. 대부분은 '오늘 재수 없네, 그래도 천만다행이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간다. 필자도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심장이 두근거리고, 주름이 두세 개는 '팍팍' 늘어난 것만 같은 기분이다.

광주시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교통수단은 도보교통이다. 분담률이 27.1%로, 승용·승합 20.2%, 시내버스 17.1%, 택시 11.4%비해 높다. 안타까운 것은 가장 많이 이용되는 교통수단인 도보(보행)에서 가장 많은 교통사고 사망자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보행자교통사고가 광주시에서만 2009년 1790건(사망 46명), 2010년 1749건(사망 48명), 2011년 1730건(사망 45명)이 발생했다. 보행자교통사고 치사율은 2.6%로 전체교통사고 치사율 1.3%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교통사고(traffic accident)'는 무작위로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결과로 '우연'이란 의미를 내재하고 있다. 그러나 보행자교통사고는 사고다발 지점, 시간대 등에서 예측이 가능하다. 달리 말해, 예방이 가능한 인재라는 것이다.

보행자안전은 교통분야에서 풀어야 할 이슈로 여기지만, 실제로 주민의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시키는 측면에서 공중보건 차원에서도 사회적 책임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운전자 또는 보행자에 의해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실수가 인재에 이르지 않도록 해야 하며, 교통사고 예방, 사고위험 노출 감소, 사고시 적절한 대응, 사고 후 조치와 같이 단계별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보행은 타 교통수단에 비해 이동성(속도)이 부족하다. 따라서 어린이 및 노약자는 보행위험에도 불구하고 가장 짧은 이동경로를 택하는 경향이 있다. 가장 느린 교통수단인 보행은 우회를 시간 낭비 및 체력소모로 여기는 경향이 있으며, 횡단을 위해 대기하는 시간을 꺼린다. 달리 말해 보행은 보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따라서 도로교통시스템은 보행자를 위해 가능한 가장 짧은 경로가 차로부터 가장 안전한 경로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보행자가 교통사고에 취약하여 자동차 운전자에 비해 불균형적으로 사상자가 많이 발생함으로 사회적 형평성의 차원에서 인체의 취약성이 정책수립에 최소한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을 위해서는 도로조명시설 정비, 도로변 가로수 정비, 횡단보도 설치, 무단횡단 방호막 설치, 통행이 잦은 '생활도로' 정비,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신호시간 개선, 어린이보호구역(School Zone), 노약자 보호구역(Silver Zone) 정비 등이 필수적이다.

보행환경조성과 더불어 교통안전교육 또한 중요하다. 특히 어린이의 경우, 3대 행동특성, 즉 조급성, 모방성, 단순성으로 인한 사고는 어릴 때부터 체험위주의 교육이 필수적이다. 노인층의 신체적·정신적 특성에서 비롯한 무단횡단 등 교통법규위반은 지속적인 교육만이 해답이다. 실제 노년층의 경우 교통안전교육 경험이 15.2%에 불과해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국제도시, 세계적인 민주·인권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광주에 선진국 수준의 교통질서 확립과 안전한 교통환경조성은 필수적 요건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전체적인 교통사고 줄이기도 중요하지만, 교통안전의 질적 수준을 나타내는 보행자교통사고의 비중이 타 대도시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고 있어 향후 주안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시급한 과제이다.

보행은 차량이동과는 달리 시각적 즐거움을 누릴 여유가 있다. 하지만, 이런 여유가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도둑이 물건을 훔치다 잡히면, 오늘 재수 없어 잡혔다고 한다. 교통사고도 재수 없으면 발생하는 보행환경으로 내버려 둘 것인가?

기고

맏형 농협·신협이 협동조합 자금 지원해야

김재희
광주 광산구 사회경제과장

세계적인 축구 명문 구단인 스페인의 FC바르셀로나.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가 소속된 팀이기도 하다. 그런데 FC바르셀로나는 타 구단과 다른 면이 있다. 구단주의 돈이 아닌 17만 명 팬들이 낸 출자금을 바탕으로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것이다. FC바르셀로나가 선수 경기복에 유니세프 광고를 싣고, 구단 수입의 일정액을 기부하는 것은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운 협동조합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20세기 말 IMF 사태와 2008년 세계 경제위기를 겪었다. 모두 힘들었지만, 금융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의 폐해를 경험한 기회이기도 했다. 가장 큰 문제는 부의 분배가 고루 이루어지지 않고 1%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돌파구가 없는 한 현재 상황이 악화되리라는 점에서 두렵기까지 하다.

협동조합은 1%의 그늘에서 말라가는 99%를 당당한 경제주체로 세우는 좋은 방법이다. 사람을 우선하는 협동조합은 고용의 질을 높여 상당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돌릴 수 있다. 또 혁명적 조치 없이 현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평화적이다.

광산구는 광주에 부는 협동조합 열풍의 발원지다. 광주 1호 협동조합인 '더불어 락'을 시작으로 지난달 말 현재 27개 협동조합이 활동 중이다. 전국 최초로 구청에 협동조합 전담조직을 구성하는 등 행정의 노력과 더불어 사는 삶에 큰 관심을 보인 주민들의 열정이 융합한 결과이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협동조합이 자생력을 키우는 사회적 기반이 필요하다. '협동조합은 생존 자체가 성공'이란 말에서 알 수 있듯 본 궤도에 오르기가 힘들다. 특히 적절한 초기 비용을 제때 구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 지역 신용협동조합의 결단이 주목받고 있다.

광주어룡신협이 한 협동조합당 1억 원 한도로 300만 원까지 무이자로 정책자금을 빌려주기로 한 협약을 지난 2월 말 광산구와 맺은 것. 또 연 10억 원을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고, 공간을 제공해 협동조합 자문·컨설팅·교육 사업도 같이 하기로 했다. 이제 막 쓰기 시작한 협동조합 역사에 길이 남을 기념비적 '사건'이다.

광산구는 협동조합 성공에 큰 몫을 담당하는 금융문제 해결에 힘을 모으고 있다. 지역 신협과 농협 등 11개 금융기관들과 MOU를 체결해 100억 원 규모의 자금지원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신협과 농협은 우리나라 협동조합 1세대들이다. 그동안 국민적 성원으로 시장에 깊이 뿌리 내린 '협동조합 맏형'들인 것이다. 사는 게 힘들었던 시절. 대부분의 집들은 '전략적 선택'을 했다. 큰아들에게 집중해 최고학부까지 교육시킨 것이다. 그 이면에는 먼저 성공해 동생들을 건사하라는 부모의 눈물겨운 바람이 있다.

협동조합은 휴머니즘에 기반해 운영되지만, 선의가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는 것이 냉정한 현실이다. 협동조합이 필요한 자금을 제때 마련할 수 있다면 자생력을 갖출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 자생력을 갖춘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이익과 함께 지역사회의 복지, 일자리 창출, 공동체 복원 등의 사회적 가치를 현실로 만들게 된다.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2559만 원으로 재작년보다 2.45% 늘었다. 그러나 GNI 중에 정부나 기업 몫을 제외한 순수 개인소득은 1482만 원에 불과하다. 이대로 가다간 가계소득과 경제성장의 괴리는 더 커질 것이다.

협동조합들이 숲을 이루면 우리 경제 생태계는 훨씬 인간적이고 풍요롭게 바뀔 것이다. 협동조합에서 나온 열매는 우리 사회 곳곳에 골고루 분배돼 결국 우리 경제의 체질을 튼튼하게 개선하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이제 싹을 틔운 협동조합이 묘목에서 거목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맏형들의 관심과 성원이 절실하다.

자녀 우울증 숨기려 하지 말고 적극 치료 나서자

우리나라 정신과 의사들 사이에서는 자기들의 가장 무서운 경쟁상대가 외국의 우수한 대형병원 정신과 의사가 아니라 '사주 카페'라는 우스갯소리를 한다고 한다.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농담이 나왔을까.

자살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해서 증가하는 우리나라. 자살 원인 중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은 우울증이다. 그런데 이걸 정식 질병으로 인식해 병원이나 전문 상담기관에 가서 우울증에 대한 치료를 받기보다는 무속이나 전통신앙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아주 많다는 것이다.

병원 대신 이런 곳을 찾는 원인 중 하나는 아마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자신과 가족의 그런 정신적 병력 사항이 기록에 남아 나중에 결혼 할 때 알려질까봐 두렵고 그런 기록이 두고두고 따라다니며 취직이나 기타 사회생활에 지장을 줄까봐 그렇기도 하다고 한다.

이런 점집, 무속신앙, 사주관상, 역술인들이 여전히 성업중이고 주택가 골목길이나 심지어 도로변 인도에 포장 마차를 쳐 놓고 영업하는 사람들까지 흔하게 보이는 것은 역으로 말하면 이런 데 의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가 된다. 하지만 우울증은 그저 막연히 무속인의 속설에 기대어서 치료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일이다.

또 하나의 걱정은 부모의 이런 잘못된 생각이 일찍 상담받고 치료하면 고칠 수 있는 자녀들의 우울증이나 자폐증을 방치하고 무속인에 의해 고치려고 하다가 결국 치료의 때를 놓치고야 마는 일도 적잖을 것 같아 우려스럽다. 이웃과 가족 친지들이 주변의 이런 경우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부모를 설득해서 전문가의 상담과 치료를 받도록 해주는 노력과 배려도 발휘했으면 좋겠다.

▲홍명호·광주시 서구 풍암동

社 說

지역 국회의원들 예산 확보 뒷전이라니

지금 전국 광역자치단체들이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 정부를 상대로 전쟁 중이라고 한다. 이달 말 신청 마감인 정부 각 부처의 내년도 국비사업과 5월로 예정된 추경에서 배제될 경우 박근혜 정부 집권 동안 추진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지역 현안사업의 추경 반영과 내년도 예산 확보를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최근 청와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방문하고, 박 대통령의 지역 공약인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및 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사업 등이 추경과 내년도 국비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박준영 전남지사도 16일부터 1박2일 동안 서울에 머물면서 현안사업과 박 대통령의 공약사업이 정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예결위원 등에게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하지만, 광주·전남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당내 계파 간 갈등 속에 당 지도부를 뽑는 5·4전당대회에 집중하느라 지역현안 챙기기엔 뒷전이라고 한다. 영남지역 자치단체들이 새누리당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수시로 당정협의회를 열어 현안사업 및 국비 확보를 위해 주력하고 있는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광주·전남은 지금까지 박 대통령의 호남 인사 홀대 등을 볼 때 지역 공약 이행도 불투명해 이번 국비 확보에서 밀리면 향후 5년간 지역발전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위기감이 팽배해 있다. 그런데도 정작, 지역을 위해 힘을 보태야할 국회의원들이 국비 확보에 딴전이라니 분노가 치민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어떤 식이든 지역 정치권과 공조를 취해 예산 확보에 총력전을 펴야 한다. 국회의원들도 지역이 처한 당면한 현실을 직시해 지원과 협조 강화 등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 이 지역 출신 새누리당 의원들을 동원하는 것도 필요하며, 여의치 않을 땐 투쟁을 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기아차 '일자리 대물림' 당장 취소하라

기아자동차 노사가 장기근속자 자녀에게 채용시 특혜를 주기로 해 비난이 일고 있다. 귀족노조의 상징으로 불리우며 채용 비리, 조합비 횡령 등 불법을 저질러온 터라 지역이미지에 먹칠하는 것은 물론 반발 기류마저 심한 상황이다.

전국금속노조 기아차지부 광주공장지회에 따르면 최근 기아차노조는 노사협상에서 생산직 직원 신규 채용 때 정년퇴직자와 25년 이상 장기근속자의 직계 자녀 1명에 한해 채용규정에 적합한 경우 우선 채용한다는데 합의했다. 1차 서류전형에서 전체 합격자 중 최대 25%를 이들 자녀 몫으로 할당하고, 2차 면접에서도 5%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이럴 경우 이들 자녀는 대부분 입사시험을 쉽게 통과해 일자리를 세습할 수 있게 된다.

기아차는 그동안 장기근속자 자녀 1명에게 1차 서류전형 때 10%의 가산점을 줘왔다. 하지만 지난해 광주공장 등 3개 공장 채용 생산직 260명 가운데 장기근속자 자녀가 3~4명에 불과하자 노조 측이 기존 가산제 개정을 요구해 관철시킨 것이다.

반면 대부분의 공기업은 사원 채용 때 근로자 자녀 우대 특채제도를 시행해오다 폐지했다. 공무상 재해로 부모가 사망·퇴직한 경우에 한해 일부 기업에서 자녀에게 가산점을 주고 있을 뿐이다.

기아차의 장기근속자 자녀 우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다른 젊은이들의 취업 기회를 그만큼 빼앗는다는 점에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소식을 접한 취업 준비생들이 '현대판 음서제' 운운하며 강하게 비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포드를 비롯한 미국 자동차 업계도 한때 사원 채용시 근로자 가족을 우대했었지만 일본 자동차와의 경쟁에서 밀리면서 모두 폐기했다. 기아차도 세계적 추세에 부응함은 물론 다른 취업 준비생들과 불평등 해소 차원에서라도 일자리 세습을 즉시 철회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베이브 류스

1914년 2월, 미국 프로야구 볼티모어 오리올스 구단주 잭 던은 지역 리틀야구단에서 돋보이는 실력을 보이던 19세의 조지 허먼 루스 주니어(1895~1948)와 계약을 맺는다. 독일계 이민자 2세인 그는 문제아였으나 7세때 카톨릭 수도사들이 운영하는 세인트 메리 공업학교에 진학한 뒤 야구에 대한 재능을 발견하게 된다.

오리올스 선수들은 햇병아리 선수인 그를 '잭의 새로운 어린 아이(babe)'라고 불렀다. 이후 그가 가공할 장타력과 피칭능력을 보이자 야구팬들과 기자들은 그를 본명 대신 '베이브 루스'(Babe Ruth)라는 애칭으로 부르게 됐다. 그는 볼티모어팀에서 프로생활을 시작해 보스턴 레드삭스와 뉴욕 양키스에서 22시즌을 뛰는 동안 총 2503게임에 출전해 통산 714개의 홈런을 기록하는 등 뛰어난 활약을 펼쳐 미국 프로야구의 전설이 됐다.

스포츠 스타들의 애칭은 또 다른 이름이다. '축구황제' 브라질 펠레(pele)의 본명은 '에드손 아란테스 도 나스시멘토'이다. 애칭 '펠레'는 어렸을 때 헌 양말로 만든 공으로 축구놀이를 곧잘 한데서 비롯됐다고 한다. FC바르셀로나 공격수 리오넬 메시 역시 '리오(lion=사자)+넬(el=작은)'이라는 이름에서 '레오'(Leo=라틴어로 '사자')라는 애칭으로 불린다.

미국 LA다저스 류현진이 지난 14일(한국시간) 애리조나와의 원정경기에서 호투는 물론 빼어난 타격 솜씨까지 뽐내 '베이브 류스'(Babe Ryuth)로 불려 화제다.

이날 류현진은 6이닝 동안 빅리그 한 경기 개인 최다인 삼진 9개를 솎아내며 역투해 시즌 2승과 한미 통산 100승을 동시에 달성한데다 3타수 3안타의 맹타를 터뜨리며 쐐기 득점까지 올렸다. 미국 언론들이 투타에서 인상적 활약을 펼친 류현진에게 메이저 리그의 전설적 홈런타자 '베이브 루스'와 '류'를 합성한 애칭을 붙여준 것이다.

새로운 애칭에 어울리게 '괴물 투수' 류현진이 미국 무대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치길 응원한다.

/송기동 체육부장 song@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鎬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12
〈대표 FAX 222-4918〉
사 회 부 2200-616
〈대표 FAX 222-4267〉
경 제 부 2200-663
문화생활부 2200-661
여론매체부 2200-621
체 육 부 2200-697
사 진 부 2200-693
조 사 부 2200-57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FAX 227-9500〉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프로젝트팀 2200-555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